



L1 영어와 L2 영어에서 부정 조동사의 인식양상 위계와 과거시제형의 역할

정태구 · 김지현 (고려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May 21, 2024

Revised: July 5, 2024

Accepted: July 16, 2024

Taegoo Chung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tchung@korea.ac.kr

Jihyun Kim (Corresponding
author)
Lecture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jihyunkim@korea.ac.kr

ABSTRACT

Chung, Taegoo and Jihyun Kim. (2024). The epistemic modality hierarchies of negative auxiliary verbs and the role of the past tense form in L1 and L2 English.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 788-810.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pistemic modality hierarchies of negative modal auxiliary verbs and the role of the past tense form in L1 and L2 English. Negative epistemic modal auxiliary verbs such as *can't* or *wouldn't* express certain degrees of certainty or doubt of a situation described (Coates 1983, Huddleston and Pullum 2002, Larsen-Freeman and Celce-Murcia 2016, Palmer 1990). This study presents the epistemic modality hierarchies of six negative modal auxiliary verbs in L1-English speakers (n=28) and Korean L2-English speakers (n=67), and explores the non-temporal role of the past tense form of the modal verbs. Based on the data from the certainty judgement task, we have got four major findings. The first finding is the epistemic modality hierarchy of negative modal auxiliary verbs in L1-English, which differs from the one of the previous studies (Larsen-Freeman and Celce-Murcia 2016). The second one is the epistemic modality hierarchies of negative modal auxiliaries in two groups of Korean L2-English learners (high, n=30, and intermediate, n=37) different at the proficiency level. The third finding is that the past tense form of the modal auxiliaries significantly lowers the level of certainty of the non-past form in L1-English. The final finding is that the Korean college students have difficulty with the certainty degrees of *won't* and *wouldn't* and with the certainty-lowering role of the past tense form. Based on these findings and the analysis of the English textbooks of the secondary schools,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for teaching the English modal auxiliary verbs.

KEYWORDS

negative modal auxiliary verbs, negative epistemic modality hierarchy, the past tense forms of English modals, secondary school English textbooks, *can't*, *won't*, *couldn't*, *wouldn't*, *may not*, *might not*

1. 서론

화자는 어떤 상황을 기술하면서 그 실현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한다. 가령, ‘오늘 비가 온다’는 상황에 대해 그 실현성의 정도가 높다고 화자가 판단하면 *It will rain today*로 표현하고, 그보다 낮다고 판단하면 *It may rain today*로 표현한다. 또는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It won't rain today*로 표현하고, 그보다 낮으면 *It may not rain today*로 표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의 실현성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인식양상(epistemic modality)이라 한다(Huddleston and Pullum 2002, Lyons 1977). 영어에서 인식양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범주는 양상조동사(modal auxiliary verbs)이다 (Holmes 1988, Hyland and Milton 1997).

상황의 실현성 또는 비실현성에 대한 화자의 확신의 정도는 다른 종류의 양상 조동사에 의해 표현된다. 높은 확신도를 표현하는 조동사(예, *must*, *can't*)와 상대적으로 낮은 확신도를 표현하는 조동사(예, *may*, *might*)가 있다. 여러 종류의 조동사는 각각 확신도 강도를 갖고 이들 전체는 하나의 양상위계(modality hierarchy)를 형성한다(정태구 2019, Larsen-Freeman and Celce-Murcia 2016).

영어에서 확신도의 다양한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조동사의 종류 외에도 과거시제형이 있다. 과거시제형은 확신 강도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 가령, *It couldn't be true*는 *It can't be true*보다 낮은 정도의 확신도를 표현한다. 이러한 과거시제형의 비시제적 용법(non-temporal use)인 원격화(remoteness) 기능은 양상조동사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can(not)* vs. *could(not)*와 더불어 *will(not)* vs. *would(not)*, 그리고 *may(not)* vs. *might(not)*의 쌍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양상조동사에서 과거시제형이 확신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에 대하여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체계적 연구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

양상조동사는 빈도가 매우 높은 기능어로 영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 양상조동사는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들을 한다. 확신도가 매우 높은 *David won't attend the meeting* 표현 대신에 *David may not attend the meeting*으로 표현하면, 소통의 명확성이 떨어지거나 오해가 발생하여 원만한 상호작용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조동사에 따른 확신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되면 상호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양상조동사는 제2언어 학습자에게 쉽지 않다. 양상조동사는 의무양상(deontic modality)과 인식양상(epistemic modality)의 두 의미로 쓰이고, 또한 그 강도는 조동사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이들의 부정형은 그 형태와 양상 정도가 규칙적이지 않다. *must*가 인식양상에 가장 높은 강도의 확신도를 표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높은 정도의 부정의 확신도 표현은 *must not*이 아닌 *can not*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could*는 매우 낮은 정도의 확신도를 표현하지만 그 부정형 *couldn't*은 아주 높은 정도의 확신도를 표현한다.

영어의 양상조동사가 한국인 영어 사용자에게 어렵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보고되었다. 한국 대학생들은 영어 원어민에 비해 양상조동사의 사용 빈도가 훨씬 낮거나(Oh, 2007), 또는 인식양상조동사를 의무양상의 의미로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Back and Lee 2017). 그런데 양상조동사의 학습에 토대가 되는 연구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영어 학습자의 코퍼스 자료를 원어민 자료와 비교하여 양상조동사의 사용 빈도수 비교하거나 개별 조동사의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나현민 2012, Choi 2017, Filipović 2016, Hyland and Milton

1997, McEnery and Kifle 2002, Oh 2007, Oh and Kang 2013). 가령, *will, would, should*의 구체적 확신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에 정태구와 노경희(2022)가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사용자의 긍정 양상조동사의 위계를 제시한 바 있으나 부정 인식양상 조동사는 다루지 않았고, 조동사의 과거시제형의 역할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기존 연구에는 부정 양상조동사 각각의 양상강도, 즉 확신도의 정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더 나아가 강한 확신도부터 아주 약한 확신도의 위계를 형성하는 양상 위계에 대한 연구는 Larsen-Freeman and Celce-Murcia(2016)가 유일한데, 이는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검증이 필요하다. 제2언어 영어학습자에게 제공할 양상 위계의 자료와 이 양상위계에 과거시제형의 역할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부정형 양상조동사는 *can't, couldn't, won't, wouldn't, may not, might not*이다. 둘째, 이들 조동사에 대하여 영어 원어민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확신도 판단 과제를 통하여 부정 양상조동사의 인식양상 위계를 도출한다. 이때 각 부정 조동사의 인식양상의 강도를 수치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양상 위계는 선행 연구가 제시한 양상 위계를 검증하고 향후에 영어교육의 주요한 준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인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확신도 판단 과제를 통하여 부정형 양상조동사의 양상 위계의 습득 실태를 조사한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양상 위계와 원어민의 양상위계와 비교하고 L2 영어 조동사의 양상 의미의 습득 실태를 연구한다. 셋째,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인식양상 위계에서 조동사의 과거시제형의 역할을 조사한다. 이는 L1 영어는 물론 L2 영어에서 과거시제형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L2 영어 조동사의 학습 방향을 제시한다.

2. L1 영어와 L2 영어의 인식양상 위계와 선행 연구

2.1 영어의 인식양상 위계와 부정 양상조동사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다음 (1a)의 대표적인 부정 인식양상 조동사이다. 부정 인식양상 조동사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을 긍정 인식 양상조동사와 비교해서 살펴보자.

- (1) a. 부정 조동사: *can not(can't), could not(couldn't), will not(won't), would not(wouldn't), may not, might not*
 b. 긍정 조동사: *must, will, would, should, may, might, could*

(1)에서 보듯이 부정과 긍정의 조동사는 상응하는 조동사가 없는 경우가 있다. *must*와 *should*는 그 부정형인 *must not*과 *should not*이 인식양상의 의미로 쓰이지 않고, *can't*은 인식양상 의미로 쓰이지만 *can*은 인식양상으로 쓰이지 않는다. 다음은 이들의 예이다.

- (2) a. Someone sent me flowers today. I think it must be Tom. (추론)
b. *It must not be Tom. (추론)
- (3) a. Someone left flowers at the door. I think it should be Jane. (추론)
b. *It should not be Jane. (추론)
- (4) a. The package can have arrived today; I ordered it a week ago. (가능성)
b. The package can't have arrived today; I only ordered it today. (추론)

위 예에서 *must*와 *should*의 부정형은 현재시 상황에 대한 인식양상의 의미(추론)로 쓰이지 않고, *can*은 긍정형은 동적 양상(가능성)으로는 쓰이지만 인식양상으로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부정형은 인식 양상의 추론 의미로 쓰일 수 있다.

(1)의 인식양상 조동사는 각각 자신의 양상 강도를 갖고 있다. 가령, *can't*은 매우 높은 정도의 확신도를 표현하고, 반면에 *may not*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정도의 확신도를 표현한다. 다음 예에서 이를 볼 수 있다.

- (5) a. It can't be her birthday today; I remember celebrating it just last month.
b. It may not rain today, but it's good to carry an umbrella just in case.

위에서 보듯이 *can't*와 *may not*은 다른 정도의 강도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1a)의 모든 부정 인식양상 조동사도 각각 다른 정도의 양상강도를 갖는다.

2.2 양상조동사의 과거시제형의 역할

영어의 부정 인식양상 조동사에는 (6)과 같이 형태적으로 두 그룹이 있다.

- (6) a. 비과거시제형: *won't*, *can't*, *may not*
b. 과거시제형: *wouldn't*, *couldn't*, *might not*

(6b)의 과거시제형은 시제적 용법과 비시제적 용법도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7) a. Yesterday Joe seemed that he wouldn't come to the meeting, but he did.
b. I think Mr. Smith wouldn't be in his office now.
- (8) a. Yesterday Bill said the rumor couldn't be true. Now he knows that it is true.
b. The speaker I see couldn't be my old friend, Ben, though he looks the same.

(7a)와 (8a)의 문맥에서 *wouldn't*과 *couldn't*은 과거시를 지시하나, (7b)와 (8b)에서는

과거시를 지시하지 않는 추론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조동사 과거시제형의 원격화 용법은 조건절(conditionals)이나 공손 표현 등에서도 흔히 사용된다.

이러한 과거시제형의 비시제적 기능에 대해 Quirk 등(1985, p. 232)은 ‘가정 또는 비현실(hypothetical or unreal)’의 의미를, Palmer(1990, p. 44)는 ‘잠정성(tentativeness)’ 또는 ‘비현실성(unreality)’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이렇게 과거시제형이 기술하는 상황을 원거리에 두어 그 현실성이 없거나 그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Huddleston과 Pullum(2002, p. 149)은 ‘양상적 원격화(modal remoteness)’로, Svalberg(2018)는 ‘거리두기’(distance)로 칭한다. 본 연구는 과거시제형의 이러한 양상 강도의 약화 기능을 ‘원격화’ 용법이라 칭한다. 이러한 과거시제형의 원격화 기능은 L2 영어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다(Riddle 1986, Skelac and Stanić 2014).

다음 예는 인식양상 조동사의 과거시제형이 양상 강도를 낮추는 역할을 보여준다.

- (9) a. It can't be true.
b. It couldn't be true.
- (10) a. He won't be in the office now.
b. He wouldn't be in the office now.
- (11) a. His statement may not be true.
b. His statement might not be true.

위 예에서 과거시제형이 비과거시제형보다 화자의 낮은 확신도를 표현한다. 그렇다면 과거시제형이 어느 정도의 확신도를 낮추는 지, 그리고 이들 전체 여섯 개의 부정 조동사는 각각 어느 정도의 확신도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순서로 위계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2.3 부정 조동사의 인식양상 위계와 선행 연구

Larsen-Freeman과 Celce-Murcia(2016, p. 150)는 현재시의 상황에 대한 부정 조동사의 인식양상 위계를 (12)와 같이 제시한다.

- (12) Wilbur: Someone's knocking at the door. I believe it's Sidney.
 - Gertrude: That might not be Sydney. Low possibility
 - That may not be Sydney.
 - That won't/wouldn't be Sydney.
 - That can't/couldn't be Sydney. Impossibility
-

(12)의 확신도 위계에서 과거시제형은 *might not*–*may not* 쌍에서 역할을 하나, *won't*–

wouldn't와 can't-couldn't 쌍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12)의 부정 조동사의 양상 위계는 다수의 화자를 조사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L1 영어와 마찬가지로 L2 영어에서의 인식양상 위계나 과거시제형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L2 영어의 양상조동사에 대한 여러 코퍼스 연구(Back and Lee 2017, Hyland and Milton 1997, Oh 2007)는 will보다 would의 사용이 영어 원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거나, will과 would의 인식양상의 용법을 매우 어렵힌다는 연구가 있다(정태구와 노경희 2022). 그러나 긍정 조동사의 양상 위계와 마찬가지로 부정 조동사의 양상 위계에서도 과거시제형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 연구 보고는 없다.

2.4 연구 주제

본 연구의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L1 영어 화자의 부정 조동사의 인식양상(확신도) 위계를 조사한다.
- 둘째, 한국인 L2 영어 사용자의 수준별 부정 조동사 인식양상 위계를 알아본다.
- 셋째, L1 영어와 L2 영어의 조동사 인식양상 위계에서 과거시제형의 역할을 알아본다.
- 넷째, 한국인 L2 영어 학습자를 위한 영어의 부정 양상조동사의 학습 방향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영어 양상조동사에 대한 인식양상 강도와 그 위계를 조사하기 위해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두 언어 그룹을 대상으로 확신도 판단 과제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영어 원어민 화자는 L1 영어 조동사의 인식양상 위계를 검증 및 도출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L2 영어 조동사의 인식양상 위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확신도 판단 과제를 실시하였다. 영어 원어민 화자는 언어학 관련 온라인 사이트의 회원들로 총 51명이 참가였으나 최종적으로 28명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제외된 23명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20명과 응답신뢰도 측정 검사에서 제외된 3명이다. 응답신뢰도 측정 방법은 자료분석 방법의 소절에서 설명한다. 최종 분석대상인 영어원어민 28명의 국적은 미국(16명), 영국(6명), 호주(4명), 그리고 캐나다(2명)이다. 이들의 성별은 여성이 18명이고 남성이 9명이며, 연령은 20~30대가 14명, 40~50대가 2명, 60~70대가 12명이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최초 참가한 총 110명 중에서 응답신뢰도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은 43명(상급 6명, 중급 37명)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7명의 자료만이 분석되었다. 최종 분석대상의 67명은 영어수준이 상급(NNS-High, n=30)과 중급(NNS-Intermediate, n=37) 수준의 두 그룹으로 서울시에 소재하는 두 대학교의 1학년에 재학중이다. 상급 그룹은

대학수학능력의 영어등급 평균이 1.63이고 중급 그룹의 평균은 4.52이다. 상급 그룹은 영어교육 전공 학과에, 중급 그룹은 비영어 분야(패션, 디자인 등)의 전공 학과에 입학한 신입생들로 영어권 국가에 3년 이상 거주한 적이 없는 대학생들이다.

확신도 판단 과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쳤다. 우선 확신도 판단 과제에 사용할 여섯 개의 부정 인식양상 조동사를 선정하고 이들이 사용되는 두 개의 상황을 설정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확신도 판단 과제 문항은 영어 원어민 3인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주어진 문맥에서 해당 조동사의 사용이 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하고, 또한 상황에 따른 조동사의 인식양상 강도의 차이가 없도록 상황 요인을 통제하였다. 사전 조사 중에 받은 피드백을 반영한 최종 설문지 문항은 구글 설문지에 작성하여 온라인에서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사용자를 대상으로 확신도 판단 과제를 실시하였다.

3.2 설문 문항 설계

설문지 문항에 사용된 인식양상 조동사는 부정형인 6개의 *can't, couldn't, won't, wouldn't, may not, might not*이다. 이들 조동사는 시제 형태적으로 비과거시제형 3개(*can't, won't, may not*)와 과거시제형 3개(*couldn't, wouldn't, might not*)이다. 이들 조동사는 현재시의 두 상황에서 모두 인식양상으로 쓰인다. 이때의 두 상황에는 다음의 예시에서처럼 두 대화자가 있고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한 서술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한다.

확신도 판단 과제는 참가자에게 두 번째 사람(예시에서 Bill)의 부정 조동사를 사용한 응답에 대한 확신도를 묻는다. 예시 I에서 보듯이 확신도는 10%에서 100%에 걸쳐 있는 10개의 척도에 표시된다. 그 상황이 참가자가 판단하기에 90% 정도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90% 칸에, 70% 정도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70% 칸에 표시하도록 안내되었다. 확신도는 어떤 상황의 비실현성에 대한 판단으로 실현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특별한 안내를 하였고, 영어 원어민들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확신도 판단 과제 문항 예시 I (영어원어민용)

<Situation One>
 <1> Jane: Someone's knocking at the door. I believe it's Sam.
 Bill: That can't be Sam.

How certain is Bill when he judges that 'the person knocking at the door is not Sam'?

Impossibility									
low < -----> high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Comments if any:									

한국인 참가자들에게는 예시 II에서처럼 밑줄 친 ‘아니다’가 있는 한국어로 안내를 하였다.

확신도 판단 과제 문항 예시 II (한국인용)

<Situation One>
 <1> Jane: Someone’s knocking at the door. I believe it’s Sam.
 Bill: That can’t be Sam.

‘문을 두드린 사람이 Sam이 아니다’ 상황에 대해 Bill이 어느 정도 확신하나요?

Impossibility (불가능성)									
low <----->					<-----> high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다음은 두 번째의 상황의 예시로 여기에서는 부정 조동사들이 첫 번째 상황에서와는 다른 순서로 제시된다. 가령, <상황 1>의 문항 <1>에는 *can't*가 사용되고 <상황2>의 <1>에는 *won't*가 사용된다. 두 상황에서 6개의 부정 조동사가 사용되고 하나의 조동사는 두 번 사용되어 문항은 총 12개(6*2=12)이다. 확신도 판단 과제는 10분 이내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다.

<Situation Two>
 <1> Joe: I’ve heard Jane’s going to marry Joe, your ex-boyfriend. Is it true?
 Sarah: That won’t be true.

3.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개의 상황은 변수가 아니다. 두 개의 상황을 설정한 이유는 두 가지로, 첫째는 동일한 조동사가 사용되는 문항수를 늘려서 확신도 판단 과제의 신뢰도를 높이고, 둘째는 응답자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한 참여자가 동일한 조동사에 대하여 두 상황에서 서로 다른 확신도에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3 이상이면 일관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한 참여자가 6개의 조동사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동사에 대한 두 상황의 확신도에서 3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자료 정제(data cleaning)로 두 모국어 그룹에서 66명(영어 원어민 23명, 한국인 영어학습자 43명)이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독립변인인 집단(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과 조동사(여섯 종류)에 따른 확신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통해 집단과 조동사가 확신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후, 양상 조동사들의 확신도에 따른 군집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Ward’s method)을 통해 적절한 군집 수를 결정한 후,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독립표본 *t* 검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여 각 조동사별로 원어민 화자와 상급 및 중급 한국어인 학습자 사이의 확신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 과거시제형(couldn't, wouldn't, might not)과 비과거시제형(can't, won't, may not) 조동사 간의 확신도 차이를 비교하여 과거시제형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절에서는 영어원어민 화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부정 조동사의 양상위계 및 조동사별 확신도를 살펴보고, 그리고 한국어인 영어학습자들의 부정 양상조동사의 양상위계와 살펴보고, 이를 영어원어민의 것과 비교한다.

4.1 부정 인식양상 조동사의 확신도 조사 결과

두 상황에서의 부정 조동사에 대하여 영어원어민 화자(NS)와 두 영어 수준(상급과 중급)의 한국어인 영어학습자가 제공한 확신도를 합산하여 각 응답자의 평균값을 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응답자 전체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표 1은 그 결과이다.

표 1. 언어집단별 각 부정 양상조동사의 인식양상 확신도 평균

조동사	언어집단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i>can't</i>	NS	28	8.482	1.4304
	NNS-H	30	8.567	1.1275
	NNS-I	37	7.932	2.0755
<i>won't</i>	NS	28	8.304	1.2121
	NNS-H	30	6.433	1.8323
	NNS-I	37	5.932	2.0418
<i>couldn't</i>	NS	28	7.696	1.5113
	NNS-H	30	7.717	1.5739
	NNS-I	37	6.581	2.2158
<i>wouldn't</i>	NS	28	7.179	1.4351
	NNS-H	30	6.333	1.5610
	NNS-I	37	6.338	1.6118
<i>may not</i>	NS	28	4.375	1.1024
	NNS-H	30	4.317	1.4884
	NNS-I	37	5.081	1.7099
<i>might not</i>	NS	28	4.179	1.1321
	NNS-H	30	4.267	2.3479
	NNS-I	37	5.459	1.9414

*NS: 영어원어민 화자, NNS-H: 한국어인 영어상급, NNS-I: 한국어인 영어중급

이 확신도 판단 과제 결과에 언어 집단(원어민과 한국인 두 그룹)과 조동사에 따른 주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PSS의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표 2의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에서 조동사와 참가자 집단(영어 원어민, 한국인 상급과 중급)은 각각 주효과가 있고, 이들 언어집단과 조동사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다.

표 2. 언어 집단과 부정 양상조동사의 주효과

	제공합	자유도	제공평균	F	p
집단	25.183	2	12.591	4.353	0.013
조동사	1054.456	5	210.891	72.901	0.000
집단*조동사	167.589	10	16.759	5.793	0.000
잔차	1596.849	552	2.893		
합계	25983.500	570			

4.2 부정 양상조동사의 인식양상 위계

여섯 종류의 부정 조동사에 대한 영어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확신도 위계는 그림1과 같다. 영어원어민 화자의 확신도는 *can't*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는 *won't*의 순서로 낮아진다.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won't*와 *might not*의 확신도에서 영어원어민과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준다. 두 그룹의 한국인 대학생들은 *won't*의 확신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중급 수준의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might not*의 확신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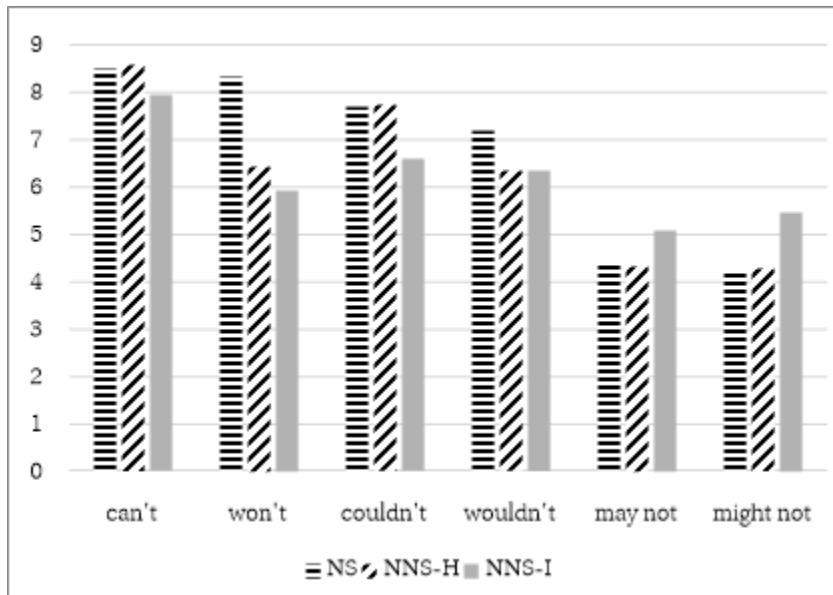


그림 1. 부정 조동사의 언어 그룹별 확신도 위계

다음에는 각 언어 그룹별로 어떤 확신도의 위계를 갖는지를 알아본다.

4.2.1 L1 영어에서 부정 조동사의 인식양상 위계

표 1에서 L1 영어의 여섯 조동사는 확신도에서 *can't* > *won't* > *couldn't* > *wouldn't* > *may not* > *might not*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동사들 간의 확신도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고, 일부 조동사들은 서로 매우 가까이 위치하여 하나의 그룹 또는 군집을 이루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조동사들은 표 3에서와 같이 세 개의 군집을 형성한다. 그리고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표 3과 같이 이들 세 군집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3에서 첫째 군집(군집 1)은 *can't*, *won't*, *couldn't*가 속하고 이들은 확신도에서 고강도 군집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군집(군집 2)은 *wouldn't*가 속하고 중강도 그룹이고, 셋째 군집(군집 3)은 *may not*과 *might not*이 속하는 저강도 그룹이다.

표 3. 영어 원어민 화자 집단의 K-means 군집분석 결과

군집분류	조동사	N	평균	표준오차	F값 유의확률
1	<i>can't won't couldn't</i>	28	8.161	0.214	F=80.000 p=.000
2	<i>wouldn't</i>	28	7.179	0.271	
3	<i>may not might not</i>	28	4.277	0.184	
총합		84	6.539	0.222	

4.2.2 L2 영어에서 부정 조동사의 인식양상 위계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부정 조동사에 대한 확신도 그룹을 찾기 위해 영어원어민과 마찬가지로 군집분석, 일원분산 분석, t-검정을 실시하여 표 4와 표 5의 결과를 얻었다.

표 4. 한국인 상급 영어학습자 집단의 K-means 군집분석 결과

군집분류	조동사	N	평균	표준오차	F값 유의확률
1	<i>can't won't couldn't</i>	30	8.142	0.206	F=49.963 p=.000
2	<i>wouldn't</i>	30	6.383	0.270	
3	<i>may not might not</i>	30	4.292	0.329	
총합		90	6.272	0.228	

표 5. 한국인 중급 영어학습자 집단의 K-means 군집분석 결과

군집분류	조동사	N	평균	표준오차	<i>t</i> 값 유의확률
1	<i>can't</i>	37	6.950	0.272	<i>t</i> =4.108 <i>p</i> =.000
	<i>couldn't</i>				
	<i>wouldn't</i>				
2	<i>won't</i>	37	5.491	0.229	
	<i>may not</i>				
	<i>might not</i>				
총합		74			

상급 그룹에서는 세 개의 군집이, 중급 그룹에서는 두 개의 군집이 형성되었고, 이들 군집은 각각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급 그룹에서 세 개의 군집은 각각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고, 중급그룹의 두 군집은 상중 강도 그룹(군집1)과 중하 강도 그룹(군집2)로 분류될 수 있다.

4.3 한국인 L2 영어학습자의 부정 조동사의 습득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 조동사에 대한 습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원어민과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각각 조동사에 대한 확신도를 비교하였다. 확신도에서 한국인 두 집단과 영어원어민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석과 *post-hoc*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여 표 6의 결과를 얻었다.

한국인 상급 영어학습자는 대체적으로 영어원어민과 비슷한 정도의 확신도를 보여주나 *won't*에서는 유의한 차이로 영어원어민보다 낮은 정도의 확신도를 보여준다. 한국인 중급 영어학습자는 *won't*, *couldn't*, *might not*에서 유의한 차이로 영어원어민보다 낮거나 높은 확신도를 보여준다. 즉 한국인 학습자는 이들 조동사의 습득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해준다.

4.4 부정 조동사의 인식양상 강도와 과거시제형

L1 영어와 L2 영어에서 조동사의 과거시제형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부정 조동사의 두 그룹인 과거시제형과 비과거시제형에 대한 영어원어민과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확신도를 비교하는 *t* 검정을 실시하여 표 7의 결과를 얻었다. 영어원어민 그룹은 조동사의 과거시제형과 비과거시제형의 확신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두 그룹은 모두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는다.

각 조동사에서 과거시제형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영어원어민과 한국인 영어학습자 두 그룹의 각 조동사의 과거시제형과 비과거시제형에 대한 확신도를 비교한 *t* 검정을 실시한 결과가 표8이다. 영어원어민의 경우에 *can't*와 *couldn't*, *won't*와 *wouldn't*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may not*과 *might not*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두 그룹이 *can't*와 *couldn't*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고 다른 두 쌍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즉 한국인 상급 학습자에게

과거시제형은 *can't*와 *couldn't*의 경우에만 유의한 역할을 하고 *won't*와 *wouldn't*의 경우에는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인 중급 영어학습자도 *won't*와 *wouldn't*에서 과거시제형이 유의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may not*과 *might not*의 경우에는 L1 영어와 L2 영어 그룹에서 모두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표 6.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영어원어민과의 부정 양상조동사 확신도 비교

조동사	집단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F	p	post-hoc (Scheffé)
<i>can't</i>	NS	28	8.482	1.4304	1.500	0.229	NS = NNS-H = NNS-I
	NNS-H	30	8.567	1.1275			
	NNS-I	37	7.932	2.0755			
<i>won't</i>	NS	28	8.304	1.2121	15.248	0.000	NS > NNS-H > NNS-I
	NNS-H	30	6.433	1.8323			
	NNS-I	37	5.932	2.0418			
<i>couldn't</i>	NS	28	7.696	1.5113	4.246	0.017	NS = NNS-H > NNS-I
	NNS-H	30	7.717	1.5739			
	NNS-I	37	6.581	2.2158			
<i>wouldn't</i>	NS	28	7.179	1.4351	2.935	0.058	NS = NNS-H = NNS-I
	NNS-H	30	6.333	1.5610			
	NNS-I	37	6.338	1.6118			
<i>may not</i>	NS	28	4.375	1.1024	2.795	0.066	NS = NNS-H = NNS-I
	NNS-H	30	4.317	1.4884			
	NNS-I	37	5.081	1.7099			
<i>might not</i>	NS	28	4.179	1.1321	4.818	0.010	NS = NNS-H > NNS-I
	NNS-H	30	4.267	2.3479			
	NNS-I	37	5.459	1.9414			

표 7. 부정 조동사의 비과거시제형과 과거시제형의 언어그룹별 확신도 비교

비과거시제형 그룹 vs. 과거시제형 그룹	NS		NNS-H		NNS-I	
	t	p	t	p	t	p
<i>can't, won't, may not</i> vs. <i>couldn't, wouldn't, might not</i>	4.592	0.000*	1.717	0.097	1.271	0.212

표 8. 조동사의 비과거시제형과 과거시제형의 언어그룹별 확신도 비교

비과거시제형 vs. 과거시제형	NS		NNS-H		NNS-I	
	t	p	t	p	t	p
<i>can't</i> vs. <i>couldn't</i>	2.844	0.008*	2.995	0.006*	3.708	0.001*
<i>won't</i> vs. <i>wouldn't</i>	5.243	0.000*	0.324	0.748	-1.556	0.128
<i>may not</i> vs. <i>might not</i>	0.945	0.353	0.173	0.864	-1.089	0.283

5. 논의

5.1 L1 영어의 부정 조동사의 인식양상 위계

영어에서 긍정 인식양상 조동사들은 양상의 강도가 있고(Coates 1983, Cowan 2008) 이들은 위계를 형성한다고 학자들은 지적하였다(정태구와 노경희 2022, Huddleston and Pullum 2002, Larsen-Freeman and Celce-Murcia 2016). 긍정 조동사들과 마찬가지로 부정 인식양상 조동사들도 강도의 위계를 형성하는데, 그 구체적인 위계를 유일하게 제시한 연구는 Larsen-Freeman 과 Celce-Murcia(2016, p. 150)이나, 이 연구를 포함해 기존의 어떤 연구도 수십 명의 화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는 없다.

앞에서 제시된 표 1과 표 3에 근거해서 영어원어민의 부정 조동사의 확신도 위계와 강도 그룹은 표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9. L1 영어의 부정 조동사 확신도 위계와 강도 그룹(군집)

확신도 척도	조동사	강도 그룹
9		
8	can't won't couldn't	고강도
7		
6	wouldn't	
5		
4	may not might not	저강도
3		

영어원어민의 부정 조동사의 확신도 위계에서 고강도 그룹에는 *can't*, *won't*, *couldn't*, 중강도 그룹에는 *wouldn't*, 저강도 그룹에는 *may not*과 *might not*이 속한다.

표 9의 위계는 앞의 (12)에 제시된 Larsen-Freeman and Celce-Murcia(2016, p. 150)의 위계와는 다른 점들이 있다. (13)은 (12)의 위계를 간단히 표시해 준다.

(13) can't/couldn't > won't/wouldn't > may not > might not

(13)에는 네 개의 그룹이 있는데, *can't*와 *couldn't* 그룹이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고 *might not*이 가장 낮은 강도의 확신도를 나타낸다. 네 개의 강도 그룹으로 된 (13)의 위계는 세 강도 그룹의 표9의 위계와 다른 점들이 있다. 첫째, 표9의 조동사 그룹은 셋이나 (13)의 그룹은 네 개이고 그 그룹의 구성원도 다르다. 둘째, (13)의 위계에서는 *won't*가 *can't/couldn't* 그룹보다

강도가 낮으나 표9에서는 실제 척도 상으로 *can't* 바로 다음의 아래 있다. 셋째, (13)에는 *may not*과 *might not*이 서로 다른 강도의 그룹에 속해 있다. 셋째, (13)의 위계는 다음 소절에서 논의할 과거시제형의 역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n't*와 *couldn't*, *won't*와 *wouldn't*에서는 과거시제형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may not*과 *might not*에서는 과거시제형이 역할을 하지 않는데 (13)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may not*과 *might not*이 영어원어민에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경험적 연구인 Filipović(2016)도 이미 보고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13)의 조동사 양상 위계는 실제 L1 영어 화자들의 확신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교육적 자료로는 문제가 있다.

표 9에 있는 조동사의 위계와 세 강도 그룹이 실제 L1 영어 화자의 확신도를 반영하고 있어 영어교육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자료는 구체적인 각 조동사의 확신도의 구체적 위치도 있고 또한 세 그룹 또는 세 군집으로 간략화되어 있어 학생들의 눈높이 맞추어 사용할 수도 있다.

5.2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부정 조동사의 확신도 위계

한국인 영어학습자 중에서 상급학습자의 부정 조동사 확신도 위계를 표 10에 제시한다.

표 10. 한국인 상급 영어학습자의 부정 조동사 확신도 위계와 강도 그룹

확신도 척도	부정 조동사	강도 그룹(군집)
9		
8	can't couldn't	고강도
7		
6	won't wouldn't	중강도
5		
4	may not might not	저강도
3		

표 10의 한국인 상급 영어학습자의 부정 조동사 확신도 위계는 영어원어민의 위계와 같이 세 개의 강도 그룹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들 두 언어 그룹에서 *won't*의 그룹은 다르다. 영어원어민의 위계에서는 *won't*는 고강도 그룹에 속하나 한국인 상급 그룹에서는 중강도에 속한다. 또한 영어원어민의 위계에서 *won't*의 확신도는 *couldn't*의 확신도 보다 높으나 한국인 상급 그룹에서는 *won't*가 낮다.

표 11은 한국인 중급 영어학습자의 부정 조동사의 확신도 위계이다.

표 11. 한국인 중급 영어학습자의 부정 조동사의 확신도 위계와 강도 그룹

확신도 척도	부정 조동사	강도 그룹(군집)
8		
7	can't couldn't wouldn't	고중 강도
6		
5	won't might not may not	중저 강도
4		

한국인 중급 영어학습자의 부정 조동사 확신도 위계에서는 두 개의 강도 그룹만이 있다. 이 위계의 특징은 그 강도에서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확신도가 없이 중간 층위(확신도 척도 5에서 8 사이)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은 *won't*가 중저 그룹에 속하여 *wouldn't*보다 그 확신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도의 분포는 영어 수준이 높지 않은 학습자들의 일반적 특징이다.

5.3 L1 영어와 L2 영어의 양상 위계에서 양상조동사 종류와 과거시제형

5.3.1 양상조동사 종류

L1 영어 부정 조동사의 양상위계는 크게 두 요인인 조동사의 종류와 과거시제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조동사 종류의 역할을 살펴본다. 표 9에서 보듯이 영어 원어민의 양상위계는 조동사 종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can't*와 *couldn't*은 확신도 척도 7.7~8.5의 고강도 수준에 있고, *won't*와 *wouldn't*는 7.0~8.3의 중강도와 고강도 수준에 있다. 반면에 *may not*과 *might not*은 4.2~4.4에 위치한다. 조동사 종류의 양상강도에 대한 영향은 Larsen-Freeman과 Celce-Murcia(2016)가 제시한 위계 (13)에서도 *can't/couldn't* > *won't/wouldn't* > *may not/might not*의 순으로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L2 영어의 양상위계에서도 조동사의 종류에 의한 영향은 표 10과 표 11에서 보듯이 L1 영어에서와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반영된다. 이는 각 조동사의 어휘적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L2 영어 학습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5.3.2 양상조동사의 과거시제형

기존 연구는 양상조동사의 과거시제형이 양상강도는 낮추는 역할에 모두 동의한다(Huddleston and Pullum 2002, Larsen-Freeman and Celce-Murcia 2016, Palmer 1990, Quirk et al. 1985). 그러나 양상조동사 각각의 양상 강도의 약화 정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다. 조동사 *will*과 *may*를

예로 들면, Huddleston과 Pullum(2002)은 과거시제형인 *would*와 *might*가 현재시제형인 *will*과 *may*에 비하여 확신도가 약간 낮다고 본다. 반면에, Larsen-Freeman 과 Celce-Murcia(2016)는 과거시제형의 역할이 조동사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즉 *will*과 *would*는 확신 강도가 동일하지만, *may*는 *might*보다 확신도가 높다고 본다. 그런데 *may*와 *might*의 경우, 다수의 학자들은 두 조동사가 확신도 측면에서 점차 구별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Carter and McCarthy 2006, Cowan 2008, Palmer 1987, Quirk et al., 1985). 그러나 L1 영어나 L2 영어에서 부정 조동사의 과거시제형의 강도 약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없었다.

경험적 결과를 보여주는 표8은 L1 영어에서 과거시제형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can't*와 *couldn't*, *won't*와 *wouldn't*의 각 쌍에서 과거시제형이 유의하게 강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may not*과 *might not*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하지만, 두 수준 그룹의 한국인의 L2 영어에서는 L1 영어 화자와 달리 *won't*와 *wouldn't*가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리고 중급 수준의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에게는 과거시제형의 강도가 비과거시제형보다 더 높은 확신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9에서 *t* 값이 음(마이너스)으로 표시된다. 즉, 한국인 L2영어 학습자들은 조동사의 과거시제형의 역할이 수준에 따라 완전하게 습득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5.4. 한국인 L2 영어에서 부정 조동사 양상 위계의 학습 양상

5.4.1 조동사 종류와 과거시제형

한국인 L2 영어학습자의 부정 조동사 위계에 대한 학습 양상을 조동사의 종류와 과거시제형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먼저 표 6에서 보면 세 개의 조동사에서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영어원어민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won't*, *couldn't*, *might not*으로, *won't*는 두 수준의 한국인들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couldn't*와 *might not*은 중급 수준의 한국인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정태구와 노경희(2022)의 연구에서 한국인 대학생들은 *will*과 *would*의 인식양상 강도를 잘 습득하지 못하였는데, 본 연구는 그 부정형인 *won't*도 그 양상 강도를 잘 습득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중급 수준의 한국인 학생들은 *couldn't*을 영어 원어민보다 더 낮게, 그리고 *might not*은 영어 원어민보다 더 높게 그 양상 강도를 판단하고 있다. 한국인 대학생들은 *can't*와 *may not*은 영어 원어민과 유의한 차이가 없기에 이 문제는 과거시제형의 기능의 학습과 연계된다고 본다.

표 12는 조동사의 종류와 과거시제형의 관점에서 영어원어민의 양상 위계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양상 위계를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다. 영어원어민의 양상 위계에서는 조동사의 종류와 과거시제형이 함께 양상 강도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가령, *won't*와 *couldn't*의 경우에 조동사 종류가 주도적인 영향을 준다면 *couldn't*가 *can't*의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하여 *won't*보다 더 높게 위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즉 *couldn't*에서는 과거시제형이 큰 역할을 하여 *won't*보다 더 아래의 단계에 배치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양상 위계에서는 조동사의 종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과거시제형은 조동사 종류가 정하는 강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로 조동사의 확신도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즉 *couldn't*는 *can't*의 바로 아래 단계로 약화시키지, *won't* 아래로까지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이 현상은 상급과 중급 학습자

모두에게서 보인다. 즉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조동사의 과거시제형의 약화 정도에 대한 학습이 영어 원어민 수준에 미달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L1 영어와 L2 영어 부정 조동사 위계에서 조동사 종류와 과거시제형

확신도 척도	영어원어민	한국인 영어학습자	
		상급	중급
8	can't(8.5) won't(8.3)	can't(8.6)	
7	couldn't(7.7) wouldn't(7.2)	couldn't(7.7)	can't(7.9)
6		won't(6.4) wouldn't(6.3)	couldn't(6.6) wouldn't(6.3)
5			won't(5.9) might not(5.5) may not(5.1)
4	may not(4.4) might not(4.2)	may not(4.32) might not(4.27)	

한편,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두 그룹은 부정 조동사의 양상(확신도) 위계에는 차이도 있지만 공통적인 점도 있다. 이 차이점과 공통점은 조동사의 종류와 과거시제형에서 비롯된다. 첫째, 두 그룹의 위계에 공통적인 패턴을 가져오는 요인은 조동사의 종류이다. 표 12에서 보듯이 조동사의 종류에 따른 확신도가 두 그룹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표 12에서 한국인에게는 영어수준에 관계없이 강도가 가장 높은 단계에는 *can't/couldn't*가, 그 바로 아래 단계에는 *won't/wouldn't*가, 가장 낮은 단계에는 *may not/might not*이 속해 있다. 이들 영어 학습자에게 조동사의 종류가 확신도 위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시제형은 한국인 영어학습자 내의 두 수준 그룹의 차이점을 유발하기도 하고, 영어 원어민과의 차이점도 유발한다. 표12에서 과거시제형은 상급 영어학습자의 위계에서는 일괄적으로 작용하여 모든 조동사에서 과거시제형이 확신도의 강도를 낮춘다. 즉, *couldn't, wouldn't, might not*은 각각 *can't, won't, may not*의 바로 아래 단계로 낮추고 있다. 그러나 영어 원어민과는 달리 *won't*와 *wouldn'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과거시제형의 습득이 불완전한 상태이다. 한편, 중급 영어학습자의 위계에서는 과거시제형의 역할은 일괄적이지 않다. *couldn't*에서는 과거시제형이 강도를 낮추고 있으나 *wouldn't*와 *might not*에서는 낮추지 않고 있다.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전체적으로 조동사 과거시제형의 양상 학습이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5.4.2 영어 인식양상 조동사의 교육실태와 교육 방향

영어 부정 양상조동사의 양상에 대하여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학습이 부족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의 중등 영어교과서와 관련 교재를 조사하였다.

현재 한국 중고등학교의 여러 출판사의 영어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중학영어 교과서 6종,

중학영어 교사용지도서 5종,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3종)에서 긍정 및 부정 양상조동사에 대한 예문과 설명을 조사하였다. 영어교과서는 이들의 예만 주로 제시하고 비교적 자세한 문법적 설명은 교사용지도서에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중학교 1~2학년 교재는 양상 조동사 *can*, *will*, *must*, *may*, *should*를 동적양상(능력)과 의무 양상(의무, 허락)으로 소개하고 있다. 조동사 *may*의 경우에는 의무(허락)와 인식(추측) 양상으로 소개하고, 한 교재는 *must*의 인식양상 의미도 설명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재는 인식양상 부정 조동사인 *won't*, *can't*, *may not*이, 그리고 과거시제형 *would*, *might*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인식양상의 예는 적고, 또한 비과거시제형과 과거시제형의 차이와 과거시제형의 강도 약화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없다. 가령, 인식양상 의미로서의 *will*과 *would*의 용법의 예, *won't*와 *wouldn't*, 그리고 *can't*와 *couldn't*의 확신도 차이를 보여주는 예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여러 양상조동사들의 인식양상 위계를 보여주는 예와 설명은 중고등학교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 권은혜(2013)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학교 교재는 *will*이 미래시제 표지로 소개하고 그 인식양상의 의미는 잘 소개하지 않고 있다.

정태구와 노경희(2022)는 한국인 대학생들이 인식양상 조동사 중에서 *will*과 *would*의 확신도의 정도를 가장 학습이 안된 조동사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표6에서 보듯이 *won't*와 *couldn't*는 원어민의 확신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조동사들이다.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원어민들보다 이들의 확신도를 훨씬 낮게 보고 있다.

한국 대학생들의 인식양상 조동사에 대한 확신도 판단 과제 결과와 한국 중고등학교의 영어 교육자료 조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의 중고등학교 영어 교재에 양상조동사의 인식양상 용법을 제시하고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의 영어교재에는 의무 양상에 대한 용법의 예는 있으나 인식양상에 대한 예와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물론 의무양상에 비해 어려운 의미이므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제시해야 좋을 것이다. 둘째, 양상 조동사의 각각에 대해서 양상(의무, 인식) 의미와 더불어 여러 양상 조동사를 함께 제시하면서 그 확신의 강도를 비교해 주는 양상 위계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인식양상은 물론 의무양상의 교육에도 해당된다. 셋째, 양상조동사의 과거시제형의 강도 약화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재에는 과거시제형의 원격화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없다. 과거시제형의 확신도 약화 기능은 조건절 또는 가정법에서도 사용되고, 또한 의무양상(요청 및 지시)에서도 공손 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식양상 조동사 중에서 *will(won't)*과 *would(wouldn't)*의 예와 이들의 양상 강도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 영어교육 자료에는 *will(won't)*을 미래시제 표지로, 그리고 *would(wouldn't)*는 그 과거시제형으로 설명하고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그렇게 학습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인식양상 의미와 그 확신도 정도의 학습이 매우 부족하거나 안 된 상태에 있다. 그 결과로 영어에서 인식 양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동사가 *will*과 *would*임도 불구하고(Coates 1983) 한국 학생들은 이들을 훨씬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된다(Oh 2007, Oh and Kang 2013).

6. 결론

본 연구는 L1 영어와 L2 영어에서 부정 조동사의 인식양상 위계를 제시하였다. L1 영어의 인식양상 위계는 기존의 연구(Larsen-Freeman and Celce-Murcia 2016)가 제시한 것과는 다르며, 기존의 위계는 실제 L1 영어화자의 확신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양상조동사의 과거시제형인 *couldn't*와 *wouldn't*가 상응하는 비시제형보다 유의하게 확신도가 낮았다. 그리고 한국인 대학생들이 학습한 부정 조동사의 인식양상 위계는 L1 영어에서의 과거시제형의 양상조동사의 확신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들의 학습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확신도 판단 과제를 한 경험적 결과에 근거하여 L1 영어와 L2 영어에서 부정 조동사의 인식양상 위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인식양상 위계에서 각 조동사의 구체적 수치의 확신도를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L1 영어 양상조동사의 과거시제형의 양상 강도 약화의 역할과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과거시제형이 비과거시제형의 확신도를 낮춘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인 L2 영어 학습자의 부정 인식양상 학습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인 대학생의 문제점으로 인식양상조동사 *won't*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정태구와 노경희 2022, Ko 2017)에서 어려운 인식양상 조동사가 *will*과 *would*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한국의 영어학습에서 *will*과 *would*를 양상 의미의 표지가 아닌 미래시제의 표지로 학습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양상조동사의 확신도 약화 기능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빈도수가 높은 인식양상 조동사의 용법과 인식양상 위계, 그리고 이들의 과거시제형의 비시제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부족하여 이의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권은혜(Kwon, E.). 2009. 영어 양상 조동사 *can*과 *will*의 의미적 쓰임 분석 및 이해 연구 -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An Analysis Study of Semantic Uses and Learners' Comprehension on the Modal Auxiliaries 'can' and 'will' - With Special Reference to Middle School English 3*).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한국교원대학교(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김성곤, 서성기, 이석영, 최동석, 강용구, 김성애, 최인철, 양빈나, 조유람 (Kim, S., S. Seo, S. Lee, D. Choi, Y. Kang, S. Kim, I. Choi, B. Yang and Y. Jo). 2018. 『중학 영어 1』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엔이능률(Seoul: NE Neungyule).
- 나현민. 2012. 조동사 *Will/Would* 의미 분석 - 미국 교과서와 한국 영어교과서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Modal Auxiliary Verbs Will/Would in English: A Comparison Between American and Korean Secondary School Textbooks*).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 경희대학교(Kyunghee University).
- 박준언, 윤병우, 김선형, 최선영, 김진수, 최지영, 최송이, 김하영(Park, J., B. Yoon, S. Kim, S. Choi, J. Kim, J. Choi, S. Choi and H. Kim). 2018. 『고등 영어』 (*High School English*). 서울: 엔이능률(NE Neungyule).
- 송미정, 권진아, 모윤숙, 신정아, 이수하, 유현주, 정지윤(Song, M., J. Kwon, Y. Mo, J. Shin, S. Lee, H. Yoo and J. Jung). 2018. 『중학 영어 1』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와이비엠 (YBM).
- 송미정, 권진아, 모윤숙, 신정아, 이수하, 유현주, 정지윤(Song, M., J. Kwon, Y. Mo, J. Shin, S. Lee, H. Yoo and J. Jung). 2018. 『중학 영어 1 교사용 지도서』 (*Middle School English 1 Teacher's Guide*). 서울: 와이비엠 (YBM).
- 양현권, 이창수, 김기택, 최정윤, 고아영(Yang, H., C. Lee, K. Kim, J. Choi and A. Go). 2018. 『중학 영어 2』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엔이능률(NE Neungyule).
- 양현권, 이창수, 김기택, 최정윤, 고아영(Yang, H., C. Lee, K. Kim, J. Choi and A. Go). 2018. 『중학 영어 2 교사용 지도서』 (*Middle School English 2 Teacher's Guide*). 서울: 엔이능률(NE Neungyule).
- 윤정미, 이희경, 강은경, 송형호, 장성욱, 염미선, 손지선, 진성인, Sundeen Glenn Paul (Yoon, J., H. Lee, E. Kang, H. Song, S. Jang, M. Yeom, J. Son, S. Jin, G. and P. Sundeen). 2018. 『중학 영어 1』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동아출판(DongA).
- 이병민, 이상민, Kim Christian, 고미라, 김수연(Lee, B., S. Lee, C. Kim, M. Go and S. Kim). 2018. 『중학 영어 1』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동아출판(DongA).
- 이병민, 이상민, Kim Christian, 고미라, 김수연(Lee, B., S. Lee, C. Kim, M. Go and S. Kim). 2018. 『중학 영어 1 교사용 지도서』 (*Middle School English 1 Teacher's Guide*). 서울: 동아출판(DongA).
- 이병민, Kim Christian, 이주연, 이정은, 김효신 (Lee, B., C. Kim, J. Lee, E. Lee, and H. Kim). 2018. 『고등 영어』 (*High School English*). 서울: 동아출판(DongA).
- 이재영 · 안병규 · 오준일 · 배태일 · 김순천 · 박성근 · 신수진(Lee, J., B. An, J. Oh, T. Pae, S. Kim, S. Park and S. Shin). 2018. 『중학 영어 1』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천재교육(Chunjae Education)
- 이재영, 안병규, 오준일, 배태일, 김순천, 박성근, 신수진(Lee, J., B. An, J. Oh, T. Pae, S. Kim, S. Park and S. Shin). 2018. 『중학 영어 1 교사용 지도서』 (*Middle School English 1 Teacher's Guide*). 서울: 천재교육(Chunjae Education)
- 이재영, 안병규, 오준일, 문안나, 김춘수, 김현진, Shaun Justin Manning(Lee, J., B. Ahn, J. Oh, A. Moon, C. Kim, H. Kim, and S. J. Manning). 2018. 『고등 영어』 (*High School English*). 서울: 천재교육(Chunjae Education)
- 정사열, 이성림, 홍숙한, 강윤희, 이현주, 성현영(Jung, S., S. Lee, S. Hong, Y. Kang, H. Lee and H. Sung). 2018. 『중학 영어 1 교사용 지도서』 (*Middle School English 1 Teacher's Guide*). 서울: 천재교육(Chunjae Education).
- 정태구(Chung, T.). 2019. 『교사를 위한 영문법』 (*Principles of Grammar, Teaching and Learning*

- for EFL Teachers).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정태구 · 노경희(Chung, T. and G. No). 2022. 영어 조동사의 인식양상 위계와 한국 대학생의 습득 실태 (The epistemic modality hierarchy of English auxiliary verbs and its acquisition by Korean college students). 《외국어교육연구》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6(3), 89–107.
- Ayoun, D., C. Gilbert, M. Howard, and P. Leclercq. 2017. The acquisition of modal auxiliaries in English by advanced Francophone learners. In M. Howard and P. Leclercq, eds., *Tense–aspect–modality in a second language: contemporary perspectives*, 183–212.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ack, J., and E. Lee. 2017. Perception and production of English modal verbs by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written academic discourse. *The Journal of Linguistics Science* 81, 133–159.
- Biber, D., S. Johansson. G. Leech, S. Conrad, and E.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Harlow, Essex: Pearson Education Limited.
- Carter, R. and M. McCarthy. 2006. *Cambridge Grammar of English: A Comprehensive Guide – Spoken and Written English Grammar and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i, I. 2017. How do Korean EFL learners acquire English modal auxiliaries *can*, *could*, *may* and *might*? A learner corpus study. *Studies in Modern Grammar* 92, 233–248.
- Coates, J. 1983.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 Beckenham: Croom Helm.
- Cowan, R. 2008.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wes, J. 2008. Do data characteristics change according to the number of scale points used? An experiment using 5–point, 7–point and 10–point sc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50(1), 61–77.
- Filipović, L. 2016. *May* vs. *might* in native vs. non–native English: Implications for inference and judgment in legal and educational contexts. *Applied Linguistics Review* 7(2), 181–201.
- Holmes, J. 1988. Doubt and certainty in ESL textbooks. *Applied Linguistics* 9, 20–44.
- Huddleston, R. and G. K.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land, K., and J. Milton. 1997. Qualification and certainty on L1 and L2 students’ Writing.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6(2), 183–205.
- Ko, H. 2017. Uses of *Will*, *Would*, and *Going To* in Microteaching by Korean Pre–service Teachers. *Teacher Education Research* 55(1), 31–46.
- Larsen–Freeman, D. and M. Celce–Murcia. 2016. *The Grammar Book: Form, Meaning, and Use for English Language Teachers*. Boston, MA: National Geographic Learning & Heinle.
- Lyons, J. 1977. *Semantics*,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Enery, T., and N. Kifle. 2002. Epistemic modality in argumentative essays of second–language writers. In T. Flowerdue, eds., *Academic discourse*, 182–195. London: Longman.
- Oh, S. 2007. A corpus–based study of epistemic modality in Korean college students’ writings in English. *English Teaching* 62, 147–175.

- Oh, S., and S.-J. Kang. 2013. The effect of English proficiency on Korean undergraduates' expression of epistemic modality in English argumentative writing. *The Journal of Asia TEFL* 10(4), 97–132.
- Palmer, R. 1990. *Modality and the English Modals*, 2nd ed. London: Longman.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iddle, E. 1986. The Meaning and discourse function of the past tense in English. *TESOL Quarterly* 20(2), 267–286.
- Skelac, I and R. Stanić. 2014. Issues in acquisition of non-temporal meanings of tenses in English by native speakers of Croatian. *Journal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Applied Linguistics* 2, 81–87.
- Svalberg, A. M.-L. 2018. Mapping tense form and meaning for L2 learning – From theory to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57(4), 417–445.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 English

Applicable Level: Tertiary